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동자 임금·근무환경 '열악'

평균 월급 광주 366만원·전남 354만원...전국 평균 못미쳐 '성취감·보람 부족' 심하고 임금 체불 불안도 상당히 높아 성적 모욕·성차별 등 전국 최고 "근본적인 해결책 있어야"

광주·전남 건설노동자들의 한 달 월급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근무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건설업 종사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성취감이 떨어지는 것은 결국 건설현장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발표한 '2024년 건설근로자 종합생활 실태조사'를 보면 광주지역 건설노동자가 받는 현재 현장 한달 월급은 366만 5375

원으로 전국 평균(394만 5160원)보다 적었다. 전남의 건설노동자는 354만 7336원으로 전국 평균과 20여만원 차이가 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부터 6월까지 최근 1년 이내 21일 이상 건설현장에서 일한 건설 노동자를 상대로 진행됐다. 광주 2만 1058명, 전남 3만 5282명의 조사단 중 112명을 추출해 조사를 진행했다.

광주·전남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성취감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취감 및 보람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광

주 45.3%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북(38.7%)과 충북(36.1%)이 뒤이었다.

'임금 체불이 불안하다'고 응답한 건설노동자는 광주에서 26.4%로 대전(31.1%)과 경남(26.6%)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주휴수당을 받느냐는 질문에는 전남(37.7%)은 울산(44.4%)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다. 광주(67.9%)는 '받지 않는다'고 답한 건설노동자가 대전(81.8%)과 제주(79.3%), 충북(68.9%)에 이어 네번째로 많았다.

'노동 강도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건설노동자는 광주(43.4%)와 전남(39.3%) 모두 전국 평균(35.1%)보다 높았다. '노동시간이 지나치다'고 답한 비율은 광주가 37.7%로 전국 평균(32.4%)보다 높았고 전남은 26.2%로 평균보다 낮았다.

휴무일수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전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19.7%로 나타났지만, 광주는 전국 평균(33.7%)보다 높은 34.0%로 집계됐다.

건설 현장 위생환경에 대한 질문에서는 '위생이 좋지 않다'고 답한 건설노동자가 광주는 54.7% 전남은 52.5%로 모두 전국 평균(51.6%) 높아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 건설 현장에서의 성적 모욕 및 성희롱, 성차별 불만족 정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광주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중 '성적 모욕과 성희롱, 성차별 불만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7.5%로 전국 평균(3.8%)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전남은 6.6%로 광주를 뒤이어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았다.

전국 건설노동자 중 성차별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남성이 3.1%, 여성이 10.1%로 여성노동자들이 3배가량 높게 느낀 것으로 집계됐고 연령대로는 30대(5.1%), 20대(4.5%), 50대(4.4%) 순이었다.

성차별 등을 당한 구직 경로는 새벽 인력시장(11.1%)이나 휴대폰 일자리 소개 유료앱(6.5%)의 비율이 높았다.

이준상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직국장은 "광주의 경우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저가수주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노동자들의 월급이나 복지 삭감으로 이어져 성취감과 만족감이 떨어진다"며 "건설현장 근로환경, 복지 등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문제와 불가분한 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서 10일 오전 열린 영암농민총결기에서 농민들이 벼를 들고 정부에 "쌀값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영암군농민회 제공>

영암 농민들 "쌀 수입 중단하고 농업 생산비 보전하라"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 마련 촉구 총결기 "주먹구구식 대책 안돼" "쌀값 1년새 20% 급락...이대로면 농가 파산·청년들 다 떠날 것"

영암지역 농민들이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촉구하며 논 갈아엎기, 집단 식발, 차량 시위 등을 벌였다.

영암농민공동행동은 10일 오전 10시 영암군 군서면 서구림리에서 영암농민총결기를 열고 "쌀 수입을 중단하고 농업 생산비를 보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영암군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영암군농민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농민들은 "지난해 10월 20여만원이었던 쌀 80kg 가격이 1년 내내 떨어지더니 지난 5일 무려 20% 하락한 17만 5000원을 기록했다"며 "이대로라면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하는 농가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청년 농업인들은 농촌을 등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쌀 10만 톤 추가 격리를 발표한 정부 대책에 대해서도 "근본적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

로 상황을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농민들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는 매년 40만 8000t씩 들어오는 쌀 수입을 중단하고, 공공비축량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전광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장은 "가을걷이를 준비하는 농민들이 쌀값 폭락 탓에 수확의 기쁨은커녕 하루 하루 불안과 걱정으로 살고 있다"며 "쌀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농업과 농촌이 파괴될 뿐 아니라 식량 주권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팔 전쟁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 2024 힌츠페터국제보도상 대상 수상

공로상 등 11월 7일 시상식

5·18민주화운동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를 기리는 '2024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힌츠페터 국제보도상 조직위원회는 10일 대상인 '기묘한 선 세계상' 수상작으로 팔레스타인의 모하메드 사와프, 살라 알 하우, 이브라힘 알 오틀라, 고(故) 마르완 알 사와프씨 등이 제작한 영상 '가자로부터 온 목소리'를 선정했다. 수상자 중 한 명인 마르완 알 사와프씨는 지난해 12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에는 2023년 10월 발생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의 대대적인 공습과 침공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의 공포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삶, 공동체를 지키려고 투쟁하는 가자 지구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뉴스 부문은 영국의 프리랜서 영상기자 유세프

함마쉬씨가 보도한 '지금 가자에서'가 선정됐다. 이 영상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민간인 피해를 다뤘다.

특집 부문에서는 영국 계스빈 모하마드씨 등 4명이 제작한 '인사이드 이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수상작으로 이름을 올렸다. 하잡 착용 문제로 불거진 이란 정부의 탄압과 시민들의 자유를 향한 투쟁 현장을 담았다.

공로상인 '오월광주상'은 전 미국 NBC 영상기자 보수, 딘 폭레, 전 영국 ITN영상기자 고(故) 알랜 다운스씨가 받았다. 이들은 '로안장군의 즉결심판(1968)'과 '네이팜탄 소녀(1972)' 등의 영상 보도를 통해 미국과 국제사회의 베트남 전쟁에 대한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은 오는 11월 7일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 245 8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린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秋샘더위' 당분간 지속...11~12일 비소식

광주·전남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가을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늦은 폭염이 추석명절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1일부터 13일까지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체감온도 33도 내외의 무더위는 이어지겠다"고 10일 예보했다.

11일에는 대기불안정으로 인해 5~6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일부 지역에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4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다. 12~13일에도 5~40mm 비가 내리겠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

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11일 낮 최고기온은 29~32도, 12일은 30~33도에 분포하겠다.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체감온도는 더 높아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일본 오키나와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열대저압부와 북태평양 사이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유입되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고 가을폭염은 추석명절 초반까지는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가 그친 후 15~16일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체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자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교회)

총장
김경운 박사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단위		모집인원	
계 열	학 과	수 시	정 시	
인 문 사 회	신 학 과	30	5	
	한국어교육학과	1	1	
	복지상담융합학부	24	5	
사 별	유아교육과	8	2	
예 능	음악 학부 (음악학 전공 / 심용음악학 전공)	21	8	
	총 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2024. 9. 9(월) ~ 13(금)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리2소로 36

www.kwangshin.ac.kr